

해남,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만든다

정부 국정과제 대응…읍·면 순회 선제적 홍보·참여 안내

태양광 발전수익 주민 배당…농촌형 에너지 소득모델화

해남군이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100개소 발굴 목표로 마을 접수 흥보에 나섰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기관 협동으로 추진 중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정부 공모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업 홍보와 참여 안내를 추진한 결과, 현재 까지 11개 면에서 총 40개소의 햇빛소득 마을 참여 의향을 접수했다. 마을 단위에 사업 의사를 확인한 단계로, 향후 부지 여건과 주민 등이,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마을협동조합 등 주민 조직이 중

심이 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협금 배당, 마을 복지사업, 전기요금 절감,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설치 대상은 유휴부지(집중지·경사면), 영농형(전·답·과수원), 지붕형(창고·죽사), 공공부지(폐교·도로변) 등 마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 규모는 300㎾에서 최대 1㎿ 이내로 조성된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의 85% 이내 웅자가 우선 지원되며, 마을 수요에 따라 주민참여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시 보조사업 연계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ReSCO) 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발전소 기획부터 시공·운영·행정 지원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을의 사

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접수된 마을 이외 14개 읍·면의 추가 흥보와 상담을 강화해 총 100개소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별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맞춤형 안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을 전 읍·면, 모든 마을로 참여를 확대해 해남형 햇빛소득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h8239@gwangnam.co.kr

목포,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현장 점검 쉼터 운영 등 확인…시설 안전 강화

목포시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한파쉼터 224개소 가운데 목포청소년수련관(한파응급대피소)과 하당제일3차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한파쉼터 운영 실태와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이 추위를 피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쉼터 운영체계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권한대행은 먼저 목포청소년수련관 한파 응급대피소를 찾아 운영시간 준수 여부와 난방 가동 상태, 필요 물품 비치 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안내 표지판 설치 상태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훑한기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어 방문한 하당제일3차경로당 한파쉼터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이를 향후 쉼터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



신안군은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신안군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신안, 탄소중립 정책 전문·체계적 추진 '기대'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정책 실행력 강화

신안군은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신안군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신안군과 신안군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식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김대기 신안군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안군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반점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군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며 "이번 센터 지정은 탄소중립을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천과 실행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뜻깊은 성과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목포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행정·학계·지역사회를 잇는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신안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gwangnam.co.kr

강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내년 말까지 50% 감면 등 지속

강진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농산물 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 한다.

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저비용·고효율 농업 경영을 돋기 위한 취지다.

현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철량·도암·작천 분점 4개소에서 총 576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모든 농기계다.

군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기계 구입 부담 없이 필요한 시기에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읍·면,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감면 연장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영아 강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또는 각 분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

진도, 동외호수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공모 사업비 15억 확보

진도군은 최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진도군 동외호수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동외호수공원은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찾는 진도군의 대표 휴식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군민의 일상에 여유와 쉼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산책로의 경사도가 높아

보행 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산책로 평균 경사도를 완만하게 개선하고, 보행 악자들을 위한 교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性和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한 보행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진도의 자연과 특성을 반영한 생태·휴식 공간을 함께 조성해 공원의 품격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동외호수공원을 누구나 제약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대표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군민의 일상에 여유와 쉼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